



‘블루오션’  
다도해 <17>

제4부 전남의 섬, 섬사람들  
① 프롤로그

광주일보는 최근 관광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섬을 찾아 역사와 문화, 자원으로써의 가치 등을 취재·보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983년 발족한 전국 유일의 섬 전문연구기관인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지금까지 섬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공유하며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편집자주>

선녀가 내려온 섬 청년과 살았다는 전설을 간직한 ‘금오도’와 기러기를 닮은 형상의 안도를 잇는 안도대교. 금오도는 조선시대 국가의 재목(材木)을 생산하는 섬으로, 1884년까지 사람 거주는 물론 출입 자체가 금지됐었다. 금오도의 소나무는 여수 전남관 건립, 경복궁 재건 등에 사용됐다.

# 생태·문화·역사 담고 사람 냄새 나는, 그 섬에 간다

## 300여개의 유인도에서 생업 종사하는 사람들 증도·금오도·청산도 물어 낸 ‘스타 섬’ 등 전남 섬·사람 이야기

전남의 섬 가운데 유인도는 대개 277~296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1~5가구 미만인 거주하는 섬 가운데 일부가 주민등록은 해두지만 생활 근거지를 섬 밖에 두고 있어 통계 수치가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5년 전의 통계이지만, 지난 2010년 전남의 유인도 296곳 가운데 현재 거주인구가 500명 미만인 섬은 257곳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25명 미만 거주 섬은 78곳, 25~50명 미만 거주 섬은 46곳 등으로 50명 미만의 주민이 사는 ‘스타 섬’이 전체 유인도의 절반(41.9%)에 가깝다. 도서민이 전국적으로 연평균 6만 4000명씩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섬의 전통과 자원의 명맥을 이어나갈 ‘사람’이 부족해질 우려가 높다.

반면 연륙·연도에 의해 ‘물’이 되버리는 섬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증도·금오도·청산도 등 ‘스타 섬’들이 속속 부상하면서 섬 방문객 수도 연간 45만7000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섬의 생태와 문화가 자칫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섬은 고대부터 해양문화의 거점이었으며, 그 유물들이 물에 비해 비교적 더 잘 보존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공룡화석에서부터 신석기, 백제고분, 통일신라 및 고려의 다양한 유물 등이 다도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조선시대 유배지로 쓰였던 섬이라는 고립과 격리의 공간에서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은 새로운 문화를 후세에 남겨주기도 했다.

강봉룡 목포대도서문화연구원장 등이 쓴 ‘섬과 인문학의 만남’은 각각의 섬들이 가진 다양한 문화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흑산도편’을 서술한 강봉룡 원장은 흑산도가 고려시대 한중 항로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으며, 읍동마을은 절터, 산성, 토기 및 기와류 등 국제해양도시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흑산도는 일본 고승 엔닌이 쓴 입당구법순례행기 등에도 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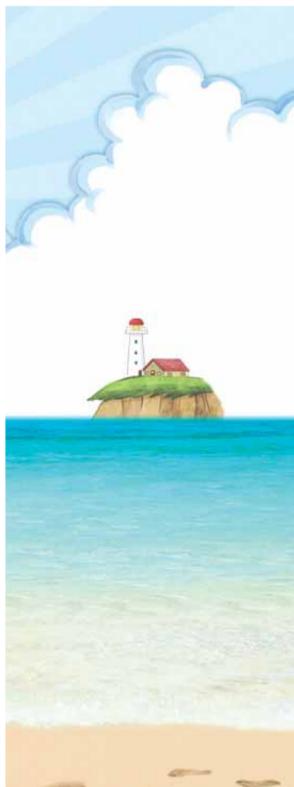
이 책은 고려 항몽 역사를 간직한 진도, 이순신 장군과 중국 진린장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완도 고금도, 한국 근대기상관측의 발상지로 일제 침략 야욕의 상징인 신안 옥도, 한센병 환자의 처절한 삶의 여정을 품은 고흥 소록도 등 전남 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쉽게 접하지 못했던 섬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 가혹한 ‘종이세’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위해 서울 한 복판에서 팽과리 처 정조에게 격쟁(역울한 일이 있는 사람이 직접 왕에게 직언할 수 있는 제도)을 한 흑산도 주민 김이수, 1800년대 초반 오키나와와 필리핀, 마카오를 표류하다 3년 2개월만에 고향인 신안군 우이도로 돌아온 ‘아시아인’ 문순득, 암해도 소작농의를 이끌다가 일제의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서태석 등이 그들이다.

이외에도 ‘2014년 다도해명소화사업 섬여행스토리북’도 전남 섬 곳곳의 자연과 생태, 문화와 사람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2015년 현재 전남 섬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7월 20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섬을 지니고 있는 주요 시·군을 찾는다. 주민이 주민등록과 생활근거지를 두고 연중 생업에 종사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섬을 위주로 연륙·연도까지 포함해 전남 섬의 현주소를 살펴볼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김정화기자 ch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 다도해 가능성·비전 찾아야”

### 강봉룡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원장



“섬 생태나원, 섬 문화유산, 다도해 산업, 탈경계의 섬 등의 범주를 중심으로 전남 다도해의 가능성과 비전을 찾았으면 합니다. 전남 다도해의 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을 담은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국 유일의 섬 전문 연구기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강봉룡 원장은 ‘다양성의 보고’인 다도해에 대해 전남의 선도적인 정책을 수립해 정부를 유인하고 때로는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에서 고대 해양사를 전공한 그는 “전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섬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해와 남해가 만나 그 지점에 있어 중국, 일본 등 동북아 해양으로 나갈 수 있는 적지”라며 “고려시대까지 국제적 해양교류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다도해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선시대 이후 섬이 고립된 공간으로 전락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섬 곳곳에 민중문화의 원형이 살아숨쉬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강 원장의 주장이다.

“도서개발촉진법을 비롯해 지금까지 섬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이나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주로 설치하는데 치중해왔다”는 그는 “이는 섬을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평가했다. 거주·접근·관광의 편의성 증진도 의미가 있지만 섬을 해양영토의 거점으로 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연근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원장은 “해양산업의 큰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해양인식이 적박하여 현실과 인식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연안바다

와 섬에 대한 무관심과 무정책도 지속되고 있으며, 초대형 선박 건조와 원양 해운 및 원양 수산 분야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 위상을 세워가고 있지만 정작 연안 해운과 연안어객선 시스템은 최악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전남의 다도해는 전남 흥망성쇠의 바로미터였다. 점에서 전남도 민선 6기 브랜드 시책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시의적절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전남의 절대 비교 우위에 있는 다도해에 대한 적절한 방향 제시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만 아직 이를 체계화하고 조직화해 큰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강 원장은 전남 섬의 생태자원 보존, 아직 남겨져 있는 섬 문화유산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조사 및 현대적 활용, 섬 농수축산물의 명품화 전략 실행, 일본·중국과의 섬 간 연계 등을 제안했다. 그는 “전남은 전국 섬의 64%, 연근해의 37%, 갯벌의 42%를 차지하고 있다”며 “섬 하나하나의 가치를 제대로 살펴보는 노력이 다도해 발전 전략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3년 문을 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원은 국내 유일의 섬 전문연구기관으로 우리나라 다도해 섬 역사문화와 자연생태 자원 등을 꾸준히 조사해 방대한 연구 자료를 축적해 왔다. 1999년 교육부 ‘중점연구소’, 2009년에는 ‘인문한국’(HK·Humanities Korea) 사업을 수행하는 국책 연구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3년에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학자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도서해양문화포럼’을 결성해 동아시아 다도해 연구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까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 시공후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